

모바일로 포커를 배우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다. 지하철에서 한두 판, 퇴근 후에 친구들과 방을 열어 몇 시간씩 붙어보기도 한다. 플레이포커는 그 흐름을 잘 타고 올라온 서비스다. 텍사스 홀덤, 오마하, 쇼트덱 같은 메인 라인부터 터보, 스피드, 토너먼트, 캐시, 미니게임까지 구성도 넓다. 게임 풀도 크고, 시간대마다 테이블이 비지 않는다. 덕분에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에 좋다. 다만 모드가 많다 보니, 같은 패라도 최적의 선택이 달라진다. 규칙은 같아도 장면은 다르고, 장면이 다르면 수익의 축이 바뀐다. 이 글은 각 모드의 승리 방정식을 한 번에 정리하려는 의도다. 수백 판씩 돌리며 건진 체감치, 숫자로 검증되는 빈도와 범위, 타이밍에 얽힌 이야기를 엮었다.

플레이포커머니는 가볍게 시작하기 좋다. 초반엔 칩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작은 승률 차이가 계정을 살리고 죽인다. 계정 관리 관점에서든 요령이 있다. 일종의 머니 매니지먼트인데, 무리한 바잉인을 삼가고 바람이 불 때만 세일을 탄다. 플레이포커머니상 같은 외부 거래는 약관과 계정 리스크를 동반한다. 단기간 칩이 늘어도 계정 제한이나 정지로 모든 수고를 잃을 수 있다. 모드를 잘 파악하고 내기술로 칩을 늘리는 쪽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 플랫폼 흐름과 기본 전제

플레이포커의 매칭은 시간대별로 풀의 성격이 바뀐다. 저녁 8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레크레이셔널 플레이가 많이 들어오고, 새벽엔 다소 타이트해진다. 주말은 월요일보다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은 전략의 톤을 결정한다. 변동성이 크면 밸류 중심, 콜이 많을수록 얇은 밸류도 수익이 된다. 변동성이 낮고 패시브한 풀에서는 블러프 성공률이 올라가지만, 과도한 시도는 레인지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쉽다.

앱 특성상 버튼 크기, 베팅 프리셋이 의사결정을 조금씩 왜곡한다. 0.5 pot, 0.75 pot 같은 기본 프리셋이 유도하는 사이징을 남들보다 따라 쓰는 경향이 있다. 이 지점에서 역이용의 기회가 생긴다. 같은 0.75 pot이라도 보드와 포지션이 달라지면 의미가 갈린다. 보편적 사이징이 보편적으로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아니다. 그저 평균일 뿐이다. 평균이 들키면 정보가 된다. 결국 우리는 패와 보드 텍스처뿐 아니라, 상대의 버튼 습관까지 읽어야 한다.

## 캐시 게임 - 텍사스 홀덤

캐시는 결국 깊이와 빈도가 핵심이다. 바잉인 100bb 기준으로 이야기하겠다. 플레이포커의 NLH 캐시는 프리플랍 3베트 빈도가 평균적으로 낮다. 라이브 스타일의 레크 비중이 높은 시간대에는 콜이 3베트보다 훨씬 많다. 콜이 많은 풀에서는 핸드 밸류가 수익을 만든다. 블러프 빈도는 억제하고, 오버콜 상황에서의 넛 밸류 우위를 노리는 편이 기대값이 높다.

오픈 레인지부터 조정한다. UTG에서는 AJ<sub>o</sub>, KQ<sub>o</sub> 같은 핸드는 접는 편이 좋다. 뒤에서 콜이 많이 따라붙는 환경에서는 리버까지의 역전 가능성이 커지고, 포지션이 없으면 얇은 톱페어가 쉽게 상한가를 못 뚫는다. 반대로 버튼과 컷오프에서는 수동적인 블라인드를 상대로 폭넓게 오픈할 수 있다. 슈티드 커넥터와 원갭은 멀티웨이에서 EV가 상승한다. 스택 투 팻 비율이 큰 초반 스트리트에서 이들의 드로우가 깊은 머니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3베트는 프리미엄으로 압축한다. TT<sup>+</sup>, AQ<sub>o</sub><sup>+</sup>, AJ<sub>s</sub><sup>+</sup> 정도만 기본으로 잡고, 상대가 과하게 콜한다면 오히려 사이징을 키워서 스택 투 팻 비율을 낮추고 플롭 이후 결정을 간단히 만든다. 4베트 파는 더 촘촘하게 운영한다. 블러프 4베트는 풀 특성상 잘 먹히지 않는다. 특히 콜을 즐기는 상대가 많을수록, 4베트 블러프는 마진이 얇아진다.

포스트플랍에서는 플롭 cbet 빈도를 낮추고, 보드에 맞춘 선별 압박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K72r 같은 건조한 보드에서 에어로 작은 사이징을 뿌리면, 콜링 스테이션에게 괜한 토큰을 준다. 반대로 T98<sub>ss</sub>처럼 연결성과 슈트가 높은 보드에서는 레인지가 좁은 프리플랍 3베터가 작은 사이징으로 넓게 압박하기 좋다. 레크가 많은 테이블의 특징은 플롭 콜, 턴 콜, 리버 폴드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큰 돈은 밸류로 벌고, 블러프는 턴에서 멈추거나, 리버에서는 블로커가 명확한 경우에만 골라서 쓴다.

리버 밸류 사이징을 두텁게 가져가면 체감 수익이 달라진다. 톱투페어 이상의 핸드는 상대 타입을 보고 70 to 120 percent pot까지도 밀어 넣을 수 있다. 플레이포커에서는 리버에서의 오버벳 콜 빈도가 생각보다 높다. 보드가 분명히 갈라지는 상황에서도, AA나 KK 같은 오버페어를 놓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런 성향은 해가 뜰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 토너먼트 - 스택 압력과 ICM

토너먼트는 스택 깊고, 구조에 따라 휘발성이 바뀐다. 플레이포커의 일반 토너먼트는 레벨 증가가 보통 6 to 10 분 사이인데, 터보나 하이퍼는 3 to 5분으로 빨라진다. 블라인드가 빨리 오르면, 포스트플랍 엷지보다 프리플랍 올인 범위 조정이 승부를 가른다. 많은 참가자 수와 재진입 구조까지 합쳐지면, 중반부에 올인과 콜의 레인지가 넓어진다. 이때 ICM을 모르면 막판에 모든 걸 반납한다.

초반부 딥스택에서는 작은 팻을 많이 가져가되, 큰 팻은 프리미엄 위주로 DNA를 구성하는 게 좋다. 레크의 과한 콜 성향 때문에 플롭 이후 블러프가 깨지는 경우가 잦다. 반면 중후반부, 25bb 이하에서는 스틸과 리스틸의 효율이 치솟는다. 컷오프, 버튼에서의 넓은 오픈에 대해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의 3베트 올인 레인지를 표준보다 약간 넓혀도 된다. 조건은 상대가 폴드를 배우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폴드와 콜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대를 잡았을 때다.

버블 구간과 파이널 테이블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칩 EV와 달리, ICM은 생존과 점프의 가치가 컸다. 칩리더는 포지션에서 압박을 극대화하고, 중간 스택은 불필요한 대치에서 빠져나온다. 숏스택은 재정비할 시간 없이 올인 때를 정해야 한다. 플레이포커 풀의 경향상, 파이널에서 칩리더의 오픈에 지나치게 넓게 콜하는 플레이가 많다. 그 틈에 3베트 올인이 통하기도 하지만, 콜 성향이 높은 상대에게는 오히려 밸류 위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콜이 쉽게 나오면 블러프의 수학이 망가지고, 바닥을 맞는 순간 토너먼트 수명이 끝난다.

토너먼트에서는 플레이포커머니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진입비용 대비 분산이 크기 때문이다. 재진입을 허용하는 대회에서 멘탈이 흔들리면 지갑이 흔들린다. 기대값이 있는 리엔트리와, 단순한 복수전은 다르다.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테이블이 열려 있고, 블라인드 구조상 아직 포스트플랍을 활용할 수 있다면 재진입은 합리적이다. 반대로 블라인드가 이미 높은 터보 후반이라면, 딥런 확률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 오마하 - 넛 창출과 레드라인 관리

오마하는 홀덤의 뒤뜰린 사촌이다. 콜이 많고 멀티웨이가 잦은 플레이포커 환경에서는 한층 더 그렇다. PLO에서는 두 장이 아닌 네 장으로 시작하니, 넛을 만들기 전까지 모든 페어와 드로우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탑셋이라도 플러시 드로우와 스트레이트 드로우에 취약해진다. 이 때문에 프리플랍의 프리미엄 기준이 달라진다. 더블 슈티드 연결성을 가진 핸드, 예를 들어 AKQJ ds 같은 조합은 프리미엄이고, AA72 rainbow처럼 연결성 없고 슈트가 겹치지 않는 AA는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프리플랍 3베트는 포지션에서, 양질의 연결성과 슈트가 확보될 때 늘려간다. OOP에서는 3베트의 기대값이 확실히 떨어진다. 플롭 이후의 결정이 복잡해지고, 레인지 우위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멀티웨이에서 작은 플러시나 낮은 스트레이트는 죽기 좋다. 밸류를 밀 때는 보드 텍스처가 잠겨 있을수록 좋고, 열린 텍스처에서는 밸류와 세미블러프가 섞인 큰 압박으로 폴드 에퀴티와 보호를 동시에 노린다.

레드라인, 즉 쇼다운 가지 않는 팻의 흐름은 오마하에서 더 중요하다. 상대가 약한 드로우를 과신할 때, 턴의 큰 배럴이 시간을 벌어준다. 완성되기 전에 팻을 가져오면, 불필요한 변동성을 줄이면서 평균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역으로, 오버리치 배럴은 리버에서 값비싼 청구서가 돌아온다. 리버의 빈도는 줄이고, 플롭과 턴에서의 압박을 설계한다.

## 쇼트덱 - 에퀴티가 가까운 게임

쇼트덱은 2 to 5가 빠진 36장 덱 게임이다. 스트레이트와 플러시의 빈도가 바뀌고, 에이스가 6과 연결되면서 A-6-7-8-9 같은 스트레이트가 성립한다. 플러시는 풀에 따라 보통 더 강한 족보로 취급된다. 플레이포커의 쇼트덱에서도 그 기본은 유지된다. 에퀴티가 가까워진다는 말은, 프리플랍 프리미엄이 홀덤보다 약하다는 뜻이다. QQ와 AK의 승률 차이가 작아지고, 멀티웨이에서 드로우의 힘이 세진다.

프리플랍은 공격적으로, 포스트플랍은 값비싼 실수를 피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오픈은 넓히되, 포지션 없는 3베트 콜은 최대한 자제한다. 플롭에서의 작은 베팅은 효과가 떨어진다. 보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반면 큰 사이징은 상대의 콜링 레인지를 더 엄격하게 만든다. 톱페어 톱키커는 쇼트덱에서도 여전히 강하지만, 플러시와 스트레이트가 빨리 열리므로 텍스처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다.

한 가지 실전 팁. 쇼트덱에서는 백도어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스트레이트 러너러너가 홀덤보다 훨씬 자주 나오고, 플러시도 마찬가지다. 턴에서의 프리퀀시를 조정할 때, 내가 막는 카드와 풀어주는 카드가 무엇인지 더 세밀하게 따진다. 작은 차이가 리버에서 실제 역전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다.

## 스피드, 터보, 하이퍼 - 시간의 압박을 돈으로 바꾸는 법

속도가 빨라질수록 의사결정은 단순해진다. 단순화는 무기다. 단, 잘 설계된 단순화여야 한다. 스택이 얇을수록 프리플랍 EV가 크게 작동하니, 핸드 레인지 차트의 역할이 커진다. 전형적으로 15 to 25bb 구간에서 버튼과 스몰 블라인드는 공격적으로, 미들 포지션은 조심스럽게 운영한다. 오픈 사이징은 작게, 2 to 2.2bb 정도로 일관되게 가져가면 포스트플랍에서의 SPR이 적당히 유지된다. 3베트 올인은 머뭇거림 없이 결정해야 한다. 망설임은 콜을 부르고, 콜은 회수 불가능한 변동성을 가져온다.

플레이포커의 스피드 모드에서는 프리셋 버튼이 특히 거칠다. 한 템포 늦으면 타임아웃, 혹은 자동 체크가 나간다. 이때 필요한 건 미리 세운 규칙이다. 예를 들어 버튼에서 20bb로 오픈을 받았을 때, A5s, KJs, 77, QTs의 대응을 테이블 조건에 따라 사전에 정의한다. 플레이가 빨라지면 상대한테도 실수가 생긴다. 그 실수를 받아먹을 준비가 돼 있으면 된다.

## 친구방과 비공식 게임 - 메타게임 읽기

친구방은 정보가 돈이다. 다섯 명이 돌리는 게임에서, 누가 술을 더 마셨는지, 누가 오늘 죽어 있는지, 누가 상금 구조를 오해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절반이다. 플레이포커는 이런 방을 만들기 쉽고, 덕분에 소규모 메타가 생긴다. 메타가 생기면, 이론적으로 약간 손해 보는 라인도 수익이 된다. 예를 들어 특정 플레이어가 내 3베트에 과민반응한다면, 블러프 빈도를 높여서 당분간 착취한다. 그러나 이 착취는 기록해야 한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라인을 반복하면, 역습이 온다. 친구방은 장기전이다.

칩 거래나 플레이포커머니상 같은 외부 루트는 친구방에서 더 빈번하게 이야기가 나온다. 규정 위반 리스크는 동일하다. 테이블에서 살아남는 가장 단단한 방법은, 결국 실력과 관리다. 외부 유입 없이 꾸준히 올라간 스택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다. 도박이 아니라 게임으로 남을 수 있다.

## 사이징의 문법 - 작은 돈이 하는 일, 큰 돈이 하는 일

사이징은 문법이다. 같은 문장을 다른 억양으로 말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33 percent pot과 150 percent pot은 서로 다른 메시지다. 플레이포커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모든 스트리트에 같은 선호 사이징을 쓰는 것이다. 작은 베팅은 레인지 전체를 보호하며 얇은 폴드 에퀴티를 만든다. 보드가 건조하고, 레인지 우위가 확실할 때만 오래 쓴다. 큰 베팅은 레인지의 상단을 강조하고, 동시에 블러프의 빈도를 줄이게 만든다. 연결된 보드, 스택이 충분한 상황, 상대의 콜링 레인지가 넓을 때 큰 베팅이 효율적이다.

특히 리버에서의 오버벳은 플레이포커에서 생각보다 잘 통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로부터 0.5 to 0.75 pot의 규범적 사이징을 많이 봐온 플레이어는, 갑자기 튀어나온 큰 베팅에 레인지 전체를 재평가해야 한다. 사람은 낮은 질문에 보수적으로 반응한다. 콜이 [탑플레이포커머니상](#) 줄거나, 혹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핸드로 호기심 콜을 한다. 둘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돈이 된다. 밸류면서 블로커가 좋은 핸드, 예컨대 플러시 최상단과 상대의 풀하우스 블로커가 겹치는 조합으로 오버벳을 설계하면 강력하다.

## 리스크 관리와 세션 운영

한 번의 큰 판이 계정을 좌우하면, 플레이가 망가진다. 플레이포커머니를 관리하는 가장 간단한 원칙 몇 가지를 적어두겠다.

- 바잉인 캡을 지킨다. 캐시에서는 총액의 3 to 5 percent, 토너먼트는 한 터진 비중이 1 to 2 percent를 넘지 않게 한다.
- 세션별 손절과 시간 제한을 정한다. 손절은 3바잉인 혹은 기대값이 무너지는 지점 중 빠른 것, 시간은 90 to 150분 사이를 기준으로 한다.
- 승리 후 쿨다운을 넣는다. 큰 이긴 후 15분을 쉬면, 과신으로 인한 변동성 급증을 줄인다.
- 게임을 바꿀 때는 이유를 적는다. 오마하에서 홀덤으로 옮기는 순간, 기본값을 초기화한다.
- 외부 칩 거래는 하지 않는다. 계정의 안정성이 수익의 기반이다.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체감상 수익 곡선이 부드러워진다. 단기적으로는 아쉬운 자리에서 발을 빼는 기회가 늘고, 장기적으로는 최선의 모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 리딩과 노트 - 앱에서도 메모는 무기다

플레이포커는 상대 노트 기능이 단순하지만 충분하다. 간단한 줄임말만 정해둬도, 다음 판에 값어치를 한다. 예를 들어 FCS는 플롭 콜 스테이션, LRB는 리버 레인지 불균형, TSB는 턴에서 큰 베팅을 자주 쓴다는 뜻으로 쓰면 기억이 나지 않는 새벽에도 적용할 수 있다. 메모가 쌓이면 프리플랍부터 조정이 가능해진다. 특정 플레이어가 3베트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오픈에 대한 3베트 블러프를 늘리고, 그 사람의 3베트에 대해서는 더 타이틀하게 쿨한다. 기록은 감정의 거품을 뺀다. 적어두면 판단이 빨라지고, 판단이 빨라지면 스피드 모드에서도 정확도가 유지된다.

## 보드 텍스처별 실전 사례

몇 가지 구체적인 장면을 짚어보자. 텍사스 홀덤 100bb 기준이다.

첫째, 버튼 오픈, 빅 블라인드 콜, 플롭 J72r. 레인지 우위는 버튼에 있다. 작은 33 percent cbet을 넓게 쓸 수 있지만, 빅 블라인드가 플롭 콜 스테이션이라면 체크백 빈도를 높인다. 이유는 턴에서의 압박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체크백은 밸런스가 아니라, 턴에서 상대가 스스로 꽃는 베팅을 받아먹기 위한 유도다. Jx의 킥커 우위가 있을 때, 턴의 60 to 80 percent 사이징으로 한 번에 밀어 넣으면 리버 의사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둘째, CO 오픈, 버튼 3베트, CO 콜, 플롭 T98ss. 이 보드는 3베터에게 레인지 우위를 주지 않는다. 콜러의 커넥티드 핸드와 슈티드 조합이 많기 때문이다. 작은 cbet은 과하다. 오히려 체크백으로 레인지의 상단을 보호하고, 턴에서 스페이드나 브로드웨이가 뜰 때 큰 배럴을 준비하는 편이 좋다. 상대가 플러시, 스트레이트를 과대평가한다면 두터운 밸류를 오버벳으로 수납할 수 있다.

셋째, 4웨이로 가는 KQ5r. 멀티웨이에서는 얇은 톱페어가 급격히 약해진다. KTo 같은 핸드는 한 번 콜 후 턴에서 장면을 보고 접을 준비를 한다. 반면 셋이나 투페어는 과감하게 키운다. 플레이포커의 멀티웨이 풀에서는 중간 밸류로 작은 팻을 지키는 쪽이 장기적으로 덜 상한다.

## 블러프의 건축 - 카드, 상대, 줄거리

블러프는 이벤트가 아니라 건축이다. 세 장면이 맞아야 서 있는 집이 된다. 첫째, 내 핸드가 막고 있는 카드가 옳다. 예를 들어 플러시가 가능한 리버에서 A하이 플러시 블로커가 없다면, 오버벳 블러프는 취약하다. 둘째, 상대

가 폴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콜링 스테이션에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보야 득이 없다. 셋째, 줄거리가 이어진다. 플롭에서 낮은 빈도로 베팅하고, 턴에서 갑작스러운 큰 베팅, 리버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꺾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같은 보드 스토리를 유지해야 상대의 폴드가 이성적이 된다.

플레이포커에서는 두 번째 조건이 가장 자주 깨진다. 폴드 치지 않는 상대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블러프 빈도는 전체적으로 줄이고, 성공률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만 집행한다. 특히 헤즈업보다는 멀티웨이에서 블러프는 거의 사양한다. 상대가 늘어나면, 폴드가 줄어드는 것은 확률의 필연이다.

## 학습 루프와 딥 다이브

앱에서의 경험을 테이블 밖의 학습으로 연결하면 성장 속도가 늘어난다. 손의 기록을 세 가지 범주로 모은다. 큰 승리, 큰 패배, 아쉬운 콜. 큰 승리는 잘한 것이 아니다. 과도하게 리스크를 떠안고 운이 도왔을 수 있다. 큰 패배는 무조건 실수가 아니다. 상대가 더 강했을 뿐일 수도 있다. 아쉬운 콜은 습관의 거울이다. 이 세 가지를 한 주 단위로 20핸드 정도 추려서 다시 본다. 플랍비스와 턴, 리버의 사이징과 레인지가 이론과 얼마나 어긋났는지 체크한다. 이 과정을 두 달만 유지해도, 허튼 배럴이 줄고 밸류가 두꺼워진다.

## 카드 밖의 요소 - 집중, 속도, 멘탈

플레이포커는 장소의 제약이 없다. 장점이자 함정이다. 이동 중에, 대기 중에, TV를 보면서 베팅하면 정보가 새어나간다. 두 눈을 온전히 테이블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시간에만 켜다. 깊은 세션 전에 가벼운 준비 루틴을 만든다. 두 줄짜리 레인지 리마인드, 오늘의 리스트 목표 한 항목, 한 판 접어야 할 신호 두 가지. 멘탈은 습관이다. 습관이 있으면 흔들릴 때 돌아갈 곳이 생긴다.

## 모드 선택의 우선순위

결국 어디에 시간을 더 써야 하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자신이 강한 포맷에 투자하는 것이 답이다. 실전 경험상,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한두 포맷에서만 뚜렷한 엷지를 갖는다. 텍사스 홀덤 캐시에서 승률이 검증된 사람은 토너먼트에서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한다. 반대로 토너먼트의 압박과 ICM에 익숙한 사람은 캐시의 깊은 스팟에서 망설인다. 하루 90분이 있다면, 60분은 주종목, 30분은 보조 종목에 투자한다. 보조 종목은 피로하지 않을 때만 연다. 피곤한 상태에서 새로운 포맷을 테스트하면, 학습이 아니라 손실만 남는다.

## 마무리 관점 - 무엇을 언제 밀어넣을 것인가

플레이포커의 각 모드는 룰보다 환경이 성적을 가르다. 콜이 많은 풀, 프리셋 사이징, 빠른 템포, 큰 참가자 수, 이 모든 것이 전략의 버튼을 조금씩 조정하게 만든다. 공통의 축은 명확하다. 포지션을 존중하고, 사이징을 설계하고, 상대의 콜 성향을 현장에서 측정한다. 밸류는 두껍게, 블러프는 정교하게, 머니 관리는 무조건적이다. 플레이포커머니를 바르게 키우면, 더 좋은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게 된다. 그 시간이 기술을 익히게 하고, 기술이 다시 시간을 벌여준다. 게임은 그 반복에서 이익을 낀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언제 밀어넣을지에 대한 기준을 몸에 심어두자. 캐시는 스택이 충분할 때 고점 밸류로, 토너먼트는 ICM이 적을 때 넓게, 버블과 파이널에서는 좁고 비싸게. 오마하는 넛과 재드로우가 겹칠 때만 크게, 쇼트텍은 에퀴티가 붙을 때 주저하지 않고. 속도가 올라갈수록 프리플랍 차트의 품질이, 풀의 콜이 늘어날수록 리버 사이징의 용기가 빛난다. 오늘도 같은 앱, 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그 장면에 맞는 대답을 준비해두면, 숫자는 자연히 오른다.